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이번 주 아침묵상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
됩니다.

3. 대강절(Advent) 셋째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대강절 기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 하루가 되시기
를 바랍니다.

4. 성탄감사주일&송년주일

12월 24일(주일) 성탄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2월 31일(주일)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송구영신예배는 따로 갖지 않으며 1월 첫째주 신년감사주일로 지킵니다.

5. 크리스마스교제모임

12월 25일(월) 오후 1시 박희천, 박은진 성도님 가정에서 교제 모임을 갖고자 합니
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셔서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아
래와 같습니다.

주소 : 19 Bark Mill Terrace, Montville, NJ 07045

6. 청소년부예배재개

새해부터 청소년부예배를 오프라인에서 재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권면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12/10)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77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이우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2:1-7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2월 24일(성탄감사)	12월 31일(송년주일)
윤원신	류외자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6) 돌보아 속량하시고

본문 : 눅1:67-80

시편 39편 5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한뼘 길이 밖에 되지 않고 유한한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거듭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 유한한 한뼘 길이 밖에 되지 않는 인생의 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유한한 복만을 허락하시기 위해 존재하신다면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시산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목적지로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모한 선택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제자들은 그 계획을 뜯어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강행했고 결국 염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이 씌우고 이를 갈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돌팔매질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큰소동이 일어나자 로마 백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출동했고, 바울은 당시 지중해지역에 가장 안전한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고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밖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작정한 암살단이 골목 곳곳에 진을 치고 바울이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을 보호하던 로마군병 45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압송하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 자체를 안 주실 수 없었냐고 따집니다. 그것이야 말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은 판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가랴가 10개월만에 입을 열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기자는 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분별하고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사가랴의 예언의 첫마디는 찬송하라였습니다. 10개월동안 침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을 때 사가랴는 가장 먼저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쌓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발견했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속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통인가?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심을 통해 은혜를 발견하고 매순간 돌보아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사라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누가 나를 돌보시며 나를 속량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행통이며 복인 것입니다.